

Infinia, 광주에 태양광발전 투자

2억6000만달러 투자 약속 ... Hankor는 친환경 불연성 소재 건설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3억2000만달러의 투자유치와 1억2000만달러의 광주 생산제품(Made in Gwangju)의 수출협약을 이끌어냈다고 5월24일 발표했다.

광주시 역대 최대이고 미래 유망업종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친환경 불연성 소방자재 생산을 위한 투자유치, 광주 특화산업인 LED(Light Emitting Diode), 투광기 등 MIG의 수출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인피니아(Infinia)는 50-100MW급 태양광 발전소와 부품 생산공장 건설에 2억6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또 미국 니아에너지(NIA Energy)는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을, 한국-미국 합작기업인 한코르(Hankor)는 기존 타일과 석고보드 등을 대체할 친환경 불연성 소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LED 가로등과 투광기 등 수출길도 개척했다.

미국 뉴욕에서 LED 실내외 조명등 1억1000만달러 수출협약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 LED제품과 투광기 1000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LED 조명제품은 전국 최초 지역 공동브랜드인 MIG를 부착하는 등 광산업 허브도시인 광주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5>